

스티븐 D. 매튜슨 박사,  
 구약 내러티브 설교, 6강:  
 성경 해석에서 설교 구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네 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번 여섯 번째 시간

에는 본문 해석에서 설교 구성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문 해석에서 설교 구성, 즉 설교를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 크라카우어는 그의 저서 《숨 막힐 듯한 공기 속으로(Into Thin Air)》에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해발 8,860미터) 정상에 올랐을 때 느꼈던 감정을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은 오랜 역경을 딛고 이뤄낸 엄청난 희열을 불러일으킨다.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바라던 목표를 마침내 달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했다.”

자축하고 싶은 마음은 앞으로 펼쳐질 길고 위험한 하산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에 완전히 사라졌다. 데이비드 브레셔스는 또 다른 유명한 산악인이다. 그는 실제로 에베레스트를 두 번 등정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그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등반가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쉬운 부분이라고 말이죠.

내려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원정 같죠.

해석의 정점에 도달했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신학적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 내용을 회중, 교회, 즉 당신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경 해석 작업을 마치고 배운 것을 설교 대상자들과 나누기 위해 산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었을 때, 핵심 아이디어의 성경 해석적 표현을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신학적 메시지는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구약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더 큰 이야기, 즉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것에 속합니다.

NT 라이트는 구약 성경이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이며, 그 결론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포함해야 하고,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와 조화를 이루며 그로부터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는 기독교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신학은 언약, 구속, 성전(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등 주요 주제들의 발전을 살펴보면서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추적하는 학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나 조직 원리를 하나의 특정한 주제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라는 선물을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에덴동산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잠재적인 건축 부지로 묘사된 에덴동산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성된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 성전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사실 에덴동산은 최초의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살펴보면 에덴동산의 모습을 반영하는 이미지와 예술 작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즉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생겨났는데, 교회 또한 성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박하며 "저는 항상 성경이 구원의 이야기라고 배워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할까요? 죄로부터의 구원,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설교할 이 이야기와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첫째, 설교자는 청중에게 이 이야기의 예언적 메시지나 윤리적 핵심에 대한 반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제공하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둘째, 청중은 구약 이야기의 신학적 메시지와 새 언약 사이의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나 역대기에서 메시지나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신학적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중요한 성경적 주제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본문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인물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짐승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는 최고의 전사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도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무엘상 25장을 설교할 때 예수님이 진정한 아비가일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점을, 또는 열왕기상 22장과 23장을 설교할 때 진정한 요시아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번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더 나은 인물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 집착한다면, 그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론을 억지로 적용해서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를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성경 해석 연구의 핵심인 해석학적 개념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청중은 내가 무엇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가?"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 중 한 분인 해든 로빈슨은 그의 저서 『성경 설교』(현재 4판)에서 이 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 질문과 제가 다음에 제시할 두 가지 질문을 설교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기능적 또는 발전적 질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취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청취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할 만한 부분을 파악하고, 설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공감이나 적용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이해, 믿음, 그리고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설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중은 제가 무엇을 설명해 주기를 바랄까요? 청중이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할 만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참고로, 이러한 질문들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로빈슨은 설명하고, 증명하고,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증명이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면, 청취자들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적용 문제는 "이게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질문들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적용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교할 때 반드시 엄격한 순서대로 질문들을 다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질문들이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라는 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 롯기를 설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엘리멜렉, 나오미, 롯, 보아스와 같은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이 이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하나님, 즉 자신의 왕을 등졌다"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해가 안 가네요. 뭐가 잘못된 거죠? 마치 제가 뉴욕에서 앨라배마주 버밍엄으로 이사 간 것과 같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자식 없는 과부가 겪는 고충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여성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제 어머니도 마지막 20년을 과부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친족 구속자 개념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밭 가장자리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관습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5분씩이나 할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가 벌써 끝나버릴 겁니다. 어떤 질문은 한두 문장으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청중들은 '충실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변함없는 사랑', '사랑하는 친절'과 같은 표현을 설교에 사용하는 번역본에 따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룯이 보아스의 밭을 드러낸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보아스는 왜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장로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신발을 벗는 의식은 또 어땠고요? 그런데 작가조차도 그 의식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최초 독자들도 그 의식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목록이 길다면, 빠르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과도한 설명을 피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일어난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해석학적 개념을 분석할 때 사용할 세 번째 질문은 타당성 질문, 즉 증명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청중들이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타당성입니다. 해든 로빈슨은 이것을 C.S. 루이스의 질문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이 분야에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이것을 팀 켈러의 질문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고인이 된 팀 켈러가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데 매우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설교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의 진리 주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이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그 내용을 설교 전체에 걸쳐 다뤘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점은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결론이 나지 않죠.

에스더서에 대한 저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럴까? 믿기 어려운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반론에 대한 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내용을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백성들을 둘러싼 암울한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에게 형벌이 집행될 시기를 결정한 것도 제비뽑기였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준비하고 자신을 방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에스더서에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마지막 분석 질문은 바로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신학적 메시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비롯됩니다. 이 구절들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제 멘토이신 해든 로빈슨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성경 해석보다는 적용 과정에서 더 많은 이단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웃어넘기면서 '아마 과장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청중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해석이란 등장인물들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교훈, 특히 신학적 메시지나 이야기의 윤리적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먼 교훈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하니까요.

그들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너무 신경을 써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인 투포이(tupoi)와 투피코스(tupikos)는 ‘유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바울이 예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적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온 다니엘 도리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윤리적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서두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도덕주의를 두려워하여 이야기에서 도덕적 교훈을 얻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성경 이야기에서 윤리적 원칙을 찾는 것을 정당화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야기에 대한 잘못되거나 부주의한 해석에 근거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설교자들은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은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표적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의 예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그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렇게 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구했습니다. 훌륭한 학자인 메리 에반스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거듭된 행동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징조가 진정으로 설득력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이야기의 본질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거나,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삼으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세부 사항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는 있지만, 이야기의 윤리적 요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들은 다윗 왕이 봄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나갔다면 성적인 유혹에 빠질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설교자는 다윗이 궁궐에 남은 것이 옳았는지 그른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지만,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우리를 유혹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요점은 그게 아니므로, 그 비유를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도 나단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청중들에게 죄를 지적해야 할 때마다 비유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쁜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거기에도 나름의 지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적용점이 그것뿐이라면,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 시대 신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은 이제 지겹네요. 저는 그냥 성경을 설교하고 싶을 뿐이에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을 직관적으로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과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에 근거하여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까다로운 문제인데, 때로는 등장인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이 이야기의 신학적 메시지와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이 바로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에훗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에훗과 에글론 왕을 기억하시나요? 제 신학적 핵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청중들에게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것처럼

자신의 독특한 특징이나 약점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

하지만 이야기의 절정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보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에훗의 왼손잡이 기질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예상치 못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모든 것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지파에서 왼손잡이 전사라니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비밀 메시지가 있고, 왕이 화장실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냄새 때문에 발생한 지연 덕분에 탈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청중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의 예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이야기의 윤리적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어떤 훈계나 권고를 담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사상은 이야기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메시지는 권고나 윤리적 핵심을 내포하고 있지만, 항상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는 언어학에서 의미론과 화용론이라는 유용한 구분에 기반합니다. 물론 설교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의미론은 어떤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고, 화용론은 그 말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차가 오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의미론적으로는 네 바퀴 차량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화용론적으로는 경고로도, 격려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이 앞마당에서 축구를 하다가 패스를 놓쳐서 공을 주우러 길로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특히 손주들은 패스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경고의 의미로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차가 오고 있어"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길로 나가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멈춰 서죠.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가 주문한 피자를 가져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똑같은 말이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어요. 또 "아빠는 언제 오실까?"라고 묻는다면, "차가 오고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그럼 제가 그들에게 거리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격려를 해 주려는 거죠.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일지도 몰라요." 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은 이야기의 신학적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지,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격려의 메시지인가요? 경고인가요? 아니면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인가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의 신학적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이거나,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새 언약의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클라인, 크레이그 블룸버그, 로버트 허바드가 지적했듯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신약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옮겨진다고 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변경되지 않고 옮겨진다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각 본문을 살펴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성취되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하는 '완전히 표현되었다'는 의미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성경 신학에 대한 논의로 이끌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맥락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반영하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계속되고 무엇이 단절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우상 문제를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수신자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말미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 경고는 "내 어린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와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였으며, 이는 우리가 그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학적 메시지가 청취자 여러분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과제입니다. 저는 모호한 적용은 모호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청취자들에게 단순히 "이것을 직장에서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물론 좋은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그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 지역, 특정 시대에 이러한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예시 두세 가지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매튜 김은 『문화적 지능을 가지고 설교하기』라는 책을 썼는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그들의 이름과 직업을 넘어 그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문화와 하위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는가? 그들의 꿈은 무엇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성경 해석적 아이디어를 설교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았고, 마침내 설교를 실제로 준비할 준비가 되었지만, 성경 해석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교 아이디어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자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이디어는 전달자가 제대로 포장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몇 년 전,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는 자사가 배송 업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창의적이기도 했죠. 단 아홉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요.

생동감 넘치는 언어 구사력과 '배송'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표현 덕분에 아이디어가 기억에 남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같은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의 가치 중 하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마 쉽게 잊히지 않겠죠? 꽤 명확하긴 하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고요. 이 말은 잠언 27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설교자로서 우리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학적 아이디어를 더 기억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9단어에서 15단어 정도로 요약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확함이 영리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것은 좋지만, 영리함은 대개 좋지 않습니다. 영리함은 웅대한 신학적 개념을 싸구려 같거나 진부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치약을 팔기 위한 광고 슬로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설교할 때,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능력을 믿는 지도자들을 통해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믿음이 항상 계약을 따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영리해서 진부해지는 선을 넘는 건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사사기 17장과 18장을 설교할 때,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만큼 개인적이거나 대화체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 봤습니다. 그러다가 첫 부분을 "우상숭배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된다"라고 바꾸니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간결합니다.

하지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거나,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을 묘사한 구절을 응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아는 청취자들은 이러한 표현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설교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시나요? 좋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오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청중들의 삶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형식을 정할 시간입니다. 설교 개요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작업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성경 해석에서 설교 구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네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